

지역사회친밀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최창목 · 김성수 · 윤준상* · 박덕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공주대학교

** 한국농업전문학교

A Theoretical Review on the Community Attachment

Chang Wook Choi, Sung Soo Kim, Joon Sang Yoon* and Duk Byeu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 Gong Ju National University

**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studies on the community attachment and to identify its related variables. Community attachm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linear development model variables and system model variables. The theoretical base for linear development model originated from Ferdinand Toennies(1957) and system model was from Kasarda and Janowitz(1974).

Linear development model variables were population size and density. And system model variables were age, education, income, number of children, marital status, length of residence, sex, and job. Recent studies on the community attachment were being carried out through system model than linear development model.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역사회개발은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다(김남선, 송두범 1992).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사회 개발은 개발의 주체인 주민의 실제적인 참여가 배제된 정부주도의 사업이었다. 이것은 결국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윤준상; 1994).

지역사회 개발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동기유발, 제도개선, 사회교육, 조직화 등이 그것이다(김남선, 송두범 1992).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고, 협동하며,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은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친밀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역사회친밀도를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여 왔다. 그 하나는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

적인 증가가 친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형발전모델(linear-development model)이며, 다른 하나는 거주기간, 수입, 연령, 교육수준 등의 변수들이 친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체제모델(systemic model)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델이 더욱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연구 자체도 언급된 것이 없다.

John 등(1986; 재인용)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선형발전모델의 집합적인 속성인지 체제모델의 개인적인 속성인지를 구명하는 것은 지역사회개발 계획 수립이나 지역사회개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효과적인 지역사회개발 사업에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그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하여 지역사회 친밀도 변인 및 분석 모형인 선형발전모델·체제모델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2.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지역사회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심리적 연대감을 가지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집단.

2) 지역사회친밀도

지역사회의 주민이 그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애착심의 정도.

3) 선형발전모델

지역사회 친밀도의 분석모델로서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적인 증가가 주민의 사회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나타내 주는 모델.

4) 체제모델

지역사회 친밀도의 분석모델로서 거주기간, 수입, 연령,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주민의 사회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나타내주는 모델.

II.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선행연구

1. 친밀도의 정의

지역사회 친밀도의 선행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주요 요인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A는 B이다'라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어떤 사람이 친밀도를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거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락함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Kasarda & Janowitz 1974, Goudy 1990, O'Brien과 Hassinger, 1992)은 지역에 대한 사회적 결합, 이웃과의 접촉,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에의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친밀도를 정의하고 있다.

2. 친밀도와 만족도

Guest와 Lee(1983; 재인용)의 연구는 친밀도와 만족도 사이의 개념적 구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었다. 그들에 의하면 한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적당한 보금자리와 안전 등의 어떤 기

본적인 요구에 대해서 유용한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있다. 반면에 지역 사회에 대한 정서(친밀도의 측정범주)는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감정적 느낌을 말한다.

만족도는 친밀도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친밀도가 감정을 측정하는 반면, 만족도는 평가적인 요소들을 다룬다(John과 그의 동료들, 1986). 따라서, 지역사회친밀도 측정에서 만족도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것은 실체적으로는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모호함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John 등(1986)이 언급했듯이 도시 거주민이 그들의 특정지역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좁은 지역에 만족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 독립변수는 만족도와 친밀도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작용 한다.

체제모델의 주창자인 Kasarda와 Janowitz(1974)는 지역사회 만족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친밀도의 구성 요소들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만족도를 포함한 연구들과 다르게 친밀도를 측정하거나 친밀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연구방법은 Kasarda와 Janowitz(1974)가 행한 불완전한 연구를 되풀이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요소가 같이 연구되어야 만이 평가가 가치를 지닐 수 있고 연구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Brown, 1990)

그런 면에서 Goudy(1990)가 행한 연구는 지역사회 만족도와 친밀도를 함께 고려한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체제모델이 선형 발전모델보다 지역사회 친밀도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3. 친밀도와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면 지역사회에 대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또 더 많은 참여를 한다고 알려져 왔다(Wilson, 1968; 재인용).

그러나, Durand와 Eckart(1973)는 그들의 연구에서 과연 그것이 높은 지에 대한 연구를 이웃들의 교육수준을 계층화하여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수준은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Samuel R. Brown, 1990).

O'Brien과 Hassinger(1992)는 그들의 '농촌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놓고 친밀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적응이 쉽지 않고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작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도자들은 지역의 태도결정을 금지시키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려는 강한 의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더 많은 친밀도를 부여한다."(O'Brien & Hassinger, 1992)

4. 친밀도와 거주기간

Kasarda와 Janowitz(1974)는 그들의 '대중사회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친밀도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의 길이를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그의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의 인구밀도의 증가나 인구크기의 증가가 지역사회 친밀도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대신 거주기간이 사회적인 밀착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oudy(1990)는 '농촌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연구'에서 거주기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거주기간이 사회적 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험되어졌을 때 4개의 시험중에서 3개에서 유의함을 보였으며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Buttel et al. (1979)과 Wasserman(1982)은 둘 다 그들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정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주기간의 길이보다 인구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Tsai와

Sigelman(1982), Nelson(1978)도 그들의 연구에서 인구조밀도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발견 했다.(Goudy, 1990)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거주기간의 길이가 지역사회 친밀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England & Albrecht, 1984; Fischer, 1982; Gerson et al., 1977; Hunter, 1974; Oxley et al., 1981; Riger & lavrakas, 1981; Sampson, 1988 : 재인용).

5. 친밀도와 이웃과의 접촉 정도

Riger와 Lavrakas(1981)은 지역사회 친밀도와 이웃과의 접촉과의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증명하였다. 그들은 비교적 영구한 고향으로 지역사회를 선택하고 막 결혼생활을 시작하려는 젊은 거주자와 자녀들을 대리고 있는 비교적 늙은 거주자로 나누었다. 두 그룹사이에서는 특히 연령과 자녀유무의 면에서 생활주기의 상황(life cycle stage)은 이웃과의 접촉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Unger와 Wandersman(1982)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sence of community), 이웃 만족도, 참여, 개인적 부의 정도와 더불어 생활주기의 상황이 중요한 이웃과의 접촉에 있어서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이웃과의 접촉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이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이 높을수록 그들은 이웃들을 보호하려 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1985년의 Unger와 Wandersman의 연구에서 그들은 이웃과의 접촉을 서술하는데 있어 사회적이고 인지적이고 효과적인 요소로서 친밀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영향력 있는 요소의 하나로서 친밀도는 상호의존의 감정,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 거주지에 대한 친밀

도로서 분석되어 졌는데, 이 세가지 요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웃과의 접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 친밀도와 인구밀도 및 인구크기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적인 증가가 사회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사회 친밀도를 약하게 한다는 연구가 Wirth(1938)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삶의 한 방식으로서의 도시화'라는 연구에서 도시사회의 기본적인 성격들은 인구수의 증가, 밀착된 거주, 거주자들의 이질성과 집단생활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Kasarda and Janowitz, 1974)

그러나, Kasarda and Janowitz(1974)는 인구크기와 인구밀도는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연구에서 밝혀 내었다.

Nelson(1978)은 인구밀도의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이웃생활의 조건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이웃과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밝혔다. 이런 인구밀도와 친밀도와의 부정적인 관계들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England & Albrecht, 1984; Fischer, 1982; Gerson et al., 1977; Hunter, 1974; Oxley et al., 1981; Riger & lavrakas, 1981; Sampson, 1988 : 재인용).

7. 친밀도와 인종

우리나라를 비롯한 단일민족의 나라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서구의 나라들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Marans와 Rogers(1974)는 그들의 연구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백인이 협인보다 아주 긍정적인 경향(만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St. John과 Clark(1984)은 그들의 연구에서 지역

사회의 만족도가 전적으로 인종에 따른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자녀나 지역 집중(local orientation)에 관계된 만족도의 영역에서 는 인종적인 상이함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Brown, 1990)

Brown(1990)은 그의 '인종적으로 통합된 이웃간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연구'에서 인종에 따라 조직의 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였다. 이웃 개선에의 협력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백인들이 참여했으며, 그들은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반면에 지역 식량 회사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의 백인들이 우세했고, 흑인들의 참여는 아주 적었다. 또한,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 하나 이상의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했으나 백인들은 많은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인종적으로 단일하게 결합하고 있었다.

8. 친밀도와 종교

종교는 Brown(1990)의 연구에 있어서 지역 사회 친밀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가톨릭교인(Catholics)이나 기독교인들(Protestants) 보다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특히, 그의 연구에서는 유대교인들이 이웃과의 접촉, 조직에의 참여, 같은 지역사회에 친구가 거주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행복감 등에 있어서 다른 종교인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III. 지역사회 친밀도의 연구모델

1. 선형발전모델

Kasarda와 Janowitz(1974)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선형발전 모델의 이론적 배경은 Ferdinand Toennies(1957), Georg Simmel(1950),

Louis Wirth(1938), Emile Durkheim(1933)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Toennies(1957)는 증가되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서술했다. 새로운 도시 환경속에서 그는 사람들 사이의 웅집력과 친밀한 우정들을 감소시키는 공동사회(Gemeinschaft)의 결합이 축소되고 이익사회(Gesellschaft)로 전향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결합은 본질적으로 선택에 의해서나,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창조되어진다는 연합(association)의 의미를 점차로 가지게 되었다 (Kasarda & Janowitz, 1974).

Simmel(1950)은 농촌지역은 기초 단체와 개인 간정의 표현을 드려시킨다는 것을 믿었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사회적 반감도를 증진시키는 특수화 된 규칙을 초래했다. 도시에서의 반감도는 도시민의 유지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것은 심적인 무거운 짙어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멀어짐(Aloofness)을 지니고 있는 이방인들의 불신과 결합된 태도였다(Brown, 1990).

"만약 어떤 사람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알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의 사람들처럼 적은 수의 사람과 계속적인 외부 접촉에 아주 많은 내부반응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면, 그는 완전히 내부적으로 원자화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Simmel(1950/1969)은 주장하였다(Brown, 1990: 재인용).

Wirth(1938) 또한 이 모델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도시화에 관한 연구'에서 우선 도시를 사회학적인 목적을 위해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개인들의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밀하고, 영구적인 정착지라고 규정하였다. 거기서 그는 도시생활을 설명해 주는 세가지의 중요한 변수들이 인구크기, 인구밀도, 이질성(heterogeneity)이라고 하였다. 이런 변수들 각각의 선형적인 증가는 원초적인 사회적 결합을 부수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친척관계와 이웃관계를 약화시킨다. 인구크기와 인

구밀도가 높을수록 도시의 문화적, 직업적 전문화가 초래되고, 타인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체적인 인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분화된 각각의 8일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Goudy, 1990).

결국, Wirth의 주장은 거대하고 이질적인 인구는 궁극적으로 대인간의 결속이나 1차적인 사회구조(공동사회), 그리고 규범적인 동질성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다(Kasarda & Janowitz, 1974).

Wirth(1938)가 '삶의 방식으로서의 도시화'를 출간한 지 거의 30년 후 Hauser(1965:22)는 Wirth의 도시화 학설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가설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다. Hauser가 위와 같이 주장한 후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은 Hauser의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친밀도와 관련있는 Wirth의 도시화와 관련된 3가지 요소들을 한 연구에 모두 포함시키지는 못했다(Brown,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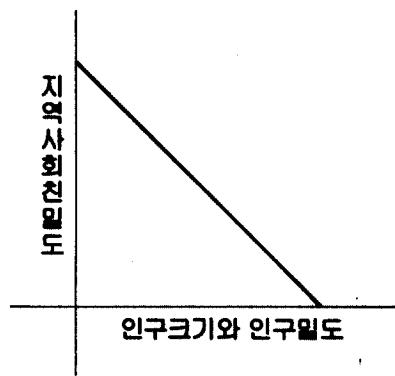
선형발전모델에서 이질성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Durkheim(1933)의 저작인 '사회에서의 노동의 분화'에서 나왔다. 이 연구에서 그는 유사성은 사회결속의 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는 이질적인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Brown, 1990). 결국 사회적 결속은 분배된 가치, 사회적 규범, 사회적 태도 등이 결합된 하나의 총체적 의식의 집합체이며 그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 결속들은 강해지고, 사회는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많이 통합되어진다는 것이다.

Durkheim(1933)은 사회적 결속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유사성 정도의 크기에 의해 측정되어 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rown(1990)은 사회적 결속력 뿐만아니라 유사성이나 동질성이 지역사회 친밀도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선형발전모델은 지역사회에서의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적 증가는 사회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외생요인이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증가는 주민들의 지역사회의 혈족관계, 친구간 유대, 지역사회사업에 대한 참여를 약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가 이질적인 사회보다 사회적 결속이 높은 사회라는 주장이다.

선형발전모델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선형발전모델 모형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친밀도는 선형발전모델의 변수인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와 반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체제모델

체제모델은 지역사회의 거주기간의 길이, 연령, 수입, 직업, 친구분포, 친지분포, 참여조직수 등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외생요인이라는 입장인데, 주요학자는 Kasarda와 Janowitz(1974), Hunter(1974), Gerson과 동료들(1977), Oxley와 동료들(1981), Riger와

lavrakas(1981), Fischer(1982), England와 Albrecht(1984), Sampson(1988), Goudy(1990), Brown(1990), O'Brien과 Hassinger(1992) 등이 있다.

Kasarda와 Janowitz(1974)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시된 체제모델은 시카고 학파의 초기 도시 사회학자인 Thomas, Park, Burgess 등 세 사람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Kasarda와 Janowitz에 의하면 그들은 '도시화된 서구 사회에서의 정서적 유대라는 관점에서 제기된 Tonnies(1957)의 공동사회에서의 이익사회로의 변형이론을 대체한 초기이론가들이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정서적이고 지역중심적인 점에서 구분되지 Tonnies가 주장한 연합적인 유대로의 변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범위, 생태학적 유용성, 조직 내에서의 활동, 개인이 이웃과 형성하는 유대의 유형과 관계된 제도적인 유용성을 말한다.

Kasarda와 Janowitz는 Tonnies의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그의 이론들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이행 측면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발견되는 지역사회 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의 형태와 범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시화된 서구사회의 사회구조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사회학적 전통(공동사회-이익사회 방식)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경험적인 관찰들이 풍부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체제 모델에 있어서 지역사회 조직은 대중사회(mass society)의 중요한 측면으로 다루어진다. 다시 말해 생태학적, 제도적, 규범적인 영역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농촌지역사회는 가정생활과 사회화과정에 뿌리를 둔 친구·친지의 네트워크(friendship/kinship network), 공식적·비공식적(formal/informal associational ties)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임과 동시에 대중사회의 광범위한 제도

(institution)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 농촌지역사회는 그것의 형태와 내용, 효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대중사회의 일반적인 구조(generic structure)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Goudy(1990)는 대중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 친밀도의 두 가지 모델(선행발전모델과 체제모델)을 재검토 하였다. 미국 북중부 아이오와의 27개 지역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로부터 나온 자료에 기초하여 선행모델의 주요변수인 인구크기와 인구조밀도를 사회적 결합도와 지역정서로 측정하였는데, 지역사회 친밀도와는 의존도가 약했다. 반면 체제모델의 주요변수들과는 상당히 큰 의존도를 나타냈다. 심지어 같은 혈통이라 여겨지는 지역에서도 지역사회들 사이에는 상이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에 따르면, Kasarda와 Janowitz에 의해 제시된 결과에 대한 지지는 비교적 강하며 체제변수들과 지역결합·정서 사이의 21개의 효과에는 파라미터중 20개가 중요성을 가졌는데 거기서 선행발전 변수 14개중 5개만이 중요성에 도달했다고 한다. 지역정서에 대한 3가지 테스트에서 체제모델의 세 변수는 모두 중요했고, 선행발전 변수는 단지 하나만이 중요했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에서 거주기간의 길이가 길수록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고, 연령이 많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이 더 커졌고, 지역사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더욱 슬퍼하고 지역사회의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결합에 대한 연구에서 거주기간의 길이는 4개의 시험중 3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조직의 회원수에서는 유일하게 수입과 연령이 거주기간의 길이를 앞질렀다. 또한, 수입은 지역사회의 친구와 친지들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아는 사람과 조직의 회원수에는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연령도 사회적 결합에 관계되는 3가

지 시험중 2개에는 부정적이고 3가지에는 중요한 요소였고 그 나머지에는 긍정적인 요소였다. 2개의 선형발전모델 변수는 지역사회 친구와 아는 사람에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인구크기와 조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농촌지역사회에서 아는 사람이 적어졌다. 비록 작은 지역사회보다 큰 지역사회가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친구가 더 많다고 말하는 거주자들이 있었지만 인구 조밀도가 커지면 근처에 사는 친구의 수가 감소되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의 길이는 지역의 사회적 결합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O'Brien과 Hassinger(1992)는 다섯개 지역사회에 대한 지도자들의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에서 6개의 항목으로 지도자들의 지역사회 적응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측정하였는데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다른 지도자와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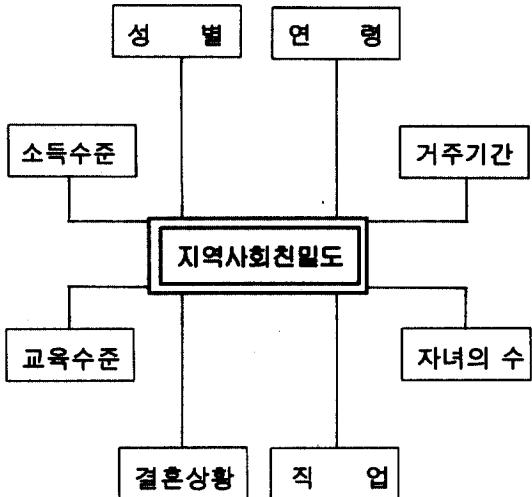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선형발전모델보다는 체제모델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집합적인 속성보다는 거시사회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단순한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생태학적, 사회구조적, 문화상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거시적 분야로 연구분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Sampson 1988: 재인용)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체제모델의 속성들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특성들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3. 선형발전모델과 체제모델의 종합적 비교

지금까지 논의된 선형발전모델과 체제모델



<그림 2> 체제모델 모형

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의 기원은 선형발전모델은 1957년, 체제모델은 1974로 볼 수 있다. 주요개념은 선형발전모델은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적인 증가가 지역사회 친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고, 체제모델은 개인적 특성변인들이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생요인이라는 것이다.

주요 변인으로는 선형발전모델은 인구크기와 인구밀도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질성(heterogeneity)을 선형발전모델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는 학자(Wilson, 1973; Durand와 Eckart, 1973; Brown, 1990)도 있다. 여기서, 이질성의 중요한 개념이 인종(race)이기 때문에 단일민족인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큰 유의성이 없다. 체제모델은 개인적인 특성들이 주요변인인데 성별, 거주기간,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자녀의 수, 결혼 상황, 직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선형연구 변인 분석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

엇인가를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선형 발전 모델과 체제 모델의 비교

모델 비교범주	선형 발전 모델	체제 모델
기원	1957년 Toennies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1974년 Kasarda와 Janowitz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주요 개념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적인 증가는 지역사회친밀도를 감소시킨다.	개인적 특성변인들이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생요인이다.
주요 변인	인구크기, 인구밀도	성별, 거주기간,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자녀의 수, 결혼 상황, 직업 등
대표적 학자	Toennies(1957) Simmel(1950/1969) Wirth(1938) Durkheim(1933)	Kasarda와 Janowitz(1974) Hunter(1974), Gerson과 동료들(1977), Oxley와 동료들(1981) Riger와 lavrakas (1981) Fischer(1982), England와 Albrecht (1984), Sampson (1988) Goudy(1990), Brown(1990) O'Brien과 Hassinger(1992)

<표 2> 선형 연구의 변인 분석

연구자 (연도)	조사방법	설정변인
Kasarda와 Janowitz (1974)	우편조사	1) 독립변인 : 거주기간의 길이, 사회적위치, 연령, 인구크기, 인구밀도. 2) 종속변인 : 친구수, 친지수, 형식적조직수, 사회활동참여수, 친구수의 백분율, 친지수의 백분율, 교계수,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를 떠나서 슬픔.
Goudy (1990)	우편조사	1) 독립변인 : 거주기간의 길이, 수입, 연령, 인구크기, 인구밀도. 2) 종속변인 : 친구수, 친지수, 지인(知人)수, 가입한 조직수,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 지역사회를 떠나서 슬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Brown (1990)	우편조사	1) 독립변인 : 인구밀도, 인구크기, 이질성, 연령, 교육수준, 수입, 취업상황, 자녀의 수, 결혼상황, 거주기간, 사회적 활동의 크기. 2) 종속변인 : 기구적 결합, 이웃과의 접촉, 조직참여, 친지의 거주지역, 친구의 거주지역, 지역사회에서의 행복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지역사회를 떠나서 슬픔.
O'Brien과 Hassinger (1992)	면접조사	1) 독립변인 : 거주기간의 길이, 교육수준, 객관적 지역사회공헌, 사회적 연결망(friendship, 사업협력자수, 농장협력자수). 2) 종속변인 : 지역사회적응력, 지역사회평가.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대립되는 2개의 모델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직 까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사회적 결합, 이웃과의 접촉,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친밀도를 정의하고 있다.

친밀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있어서 한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적당한 보금자리와 안전 등의 어떤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 유용한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친밀도는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감정적인 느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친밀도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준과 거주기간, 이웃과의 접촉정도, 인구밀도 및 인구크기, 인종, 종교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지역사회 친밀도의 연구모델은 크게 선형발전모델과 체제모델로 대변할 수 있다. 선형발전모델은 1957년 Toennies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체제모델은 1974년 Kasarda와 Janowitz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형발전모델의 주요 변수는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이며 지역사회 친밀도는 인구크기 및 인구밀도와는 반비례의 관계이다. 한편, 체제모델의 주요 변수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성별, 연령, 거주기간, 자녀의 수, 직업, 결혼상황,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 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개인적 특성들의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의 초창기에는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적 증가가 지역사회 친밀도를 감소시킨다는 선형발전모델의 연구를 통해 특성변인들이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외생요인이라고 보는 체제모델을 주요 연구를로 삼고 있다.

V. 참고문헌

1. 고순철. 1992. 제주도 농촌주민의 지역사회만족도 연구, 서울대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 김경동. 1982.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3. 김남선. 1994. 지역사회개발학 연구, 지역발전연구센터 출판부.
4. 김두섭. 1994.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법문사.
5. 송두범, 김남선. 1992. 농촌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참여 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연구.
6. 윤준상. 1994. 지역사회 개발행정사업에 대한 주민의 집단행동 참여와 그 관련 변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7. 이순전. 1977. 농촌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8. 이종원. 1994. 계량경제학, 박영사.
9. 정하성. 1994.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 참여, 인권과 정의.
10. 최상호, 정지용. 1987. 지역사회개발론, 교학연구사.
11. 흥동식. 1977. 지역사회 개발과정에서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한국교육(4).
12. Baldassare, Mark. 1982. The Effects of Neighborhood Density and Social Control on Resident Satisfac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23:95-105.
13. Brown, Samuel R.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a Racially Integrated Neighborhood, Pennsylvania: the Univ. of Pennsylvania Press, Thesis.
14. Cook, Annable Kirschner. 1975. Factors Related to Community Satisfaction and Community Attachment, Washington state Univ. Press, Thesis.
15. Davies, Vernon. 1986. Development of a Scale to Rate Attitude of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16:608-19.
16. Fessler, D. R. 1952.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Measuring Community Solidarity, Rural Sociology, 17:144-52.

17. Freudenburg, William R. 1986. The Density of Acquaintanceship: An Overlooked Variable in Community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2, No. 1.
18. Goudy, Willis J.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a Rural Region, *Rural Sociology* 55(2):178-198.
19. Guest, Avery M. and Barrett A. Lee. 1983a. Sentiment and Evaluation as Ecological Variables, *Sociological Perspectives*, 26:159-184.
20. Haruo Nagamine. 1981. Human Needs and Regional Development, Maruzen Asia.
21. Kasarda, John D. & Morris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y Review* 39(june):328-339
22. Keller, S. 1968. *The Urban Neighborhood*, New York: Random House.
23. Ladewig, H. and G. McCann. 1981. Community Satisfaction: Theory and Measurement, *Rural Sociology*, 45:110-131.
24. Marans, R. W. and W. Rogers. 1974.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A. H. Hawley and V. P. Rock(eds.) *Metropolitan America in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York: Wiley.
25. Nelson, Franklyn L. 1978. Residential Dissatisfaction in the crowded Urban Neighborhood,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8:227-238.
26. O'Brien, David J. and Edward W. Hassinger. 1992. Community Attachment Among Leaders in Five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Vol. 57, No. 4.
27. _____, Ralph B. Brown, and James R. Pinkerton. 1991, The Social Networks of Leaders in More and Less Viable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Vol 56, Non 4.
28. Ploch, Louis A. 1978. The Reversal in Migration Patterns - Some Rural Development Consequences, *Rural Sociology*, Vol. 43, No. 1.
29. Rojek, Dean G., Frank Clemente, Gene F. Summers. 1975. Community Satisfaction: A Study of Contentment With Local Services, *Rural Sociology*, Vol. 40, No. 2.
30. Riger, S. and P. J. Lavrakas. 1981. Community Ties: Patterns of Attach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55-66.
31. Sampson, Robert J.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766-779.
32. Simmel, Georg. 1969.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Richard Sennet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33. Unger, Donald G. and Abraham Wandersman, 1982. Neighboring in an Urban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493-509.
34. Wilson, J. The Urban Unease: Community vs. City, *Public Interest*, 12:25-39.